

老舍의 小說과 劇本

李 炳 漢*

1. 前 言

1917년, 〈新青年〉 잡지에 胡適이 〈文學改良芻議〉를 발표하고, 이어 陳獨秀가 〈文學革命論〉을 발표함에 이르러 中國의 新文學運動은 불이 붙기 시작하였다. 그뒤로 1919년에 展開된 五四運動의 기운을 타고 白話로 된 作品이 많이 발표되고 또 文學雜誌도 여러가지 발행되었으며, 文壇의 “씨클” 활동도 활발하였다.

1920년에는 周作人, 鄭振鐸, 朱希祖, 沈雁冰 등이 문학에 있어서의 휴머니즘을 표방하여 「文學硏究會」를 결성하고 기관지로 〈小說月報〉를 발행하면서 외국 문학의 소개에도 힘을 기울였다. 한편 郁達夫, 張資平, 郭沫若 등은 또 「創造社」를 결성하여 〈創造〉라는 잡지를 발행하면서 藝術至上主義를 표방하여 「文學硏究會」와는 대립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創造社」는 이 무렵 유행하기 시작한 『맑시즘』의 영향을 받아 점차 社會運動 쪽으로 기울어 理論보다는 實踐을 앞세우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蔣光慈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프로레타리아” 文學團體인 「太陽社」와 손을 잡고 革命文學論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文學硏究會」는 점차 그 세력이 약화되었고, 魯迅 및 「創造社」를 탈퇴한 郁達夫 등이 중심이 된 「語絲派」가 다시 理想的 自由主義를 표방하고 나서서 여러 해 동안 서로 격렬한 文學論爭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創造社」는 社會問題에 지나치게 참여한 탓으로 1928년에는 당시의 國民黨政府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았고, 國民黨政府의 統制와 彈壓에 반감을 품

* 서울大 人文大 教授

은 文人들은 급기야 1930년에 「左翼作家聯盟」을 결성하기에 이른다. 그 뒤로 中日戰爭이 발발하여 中國의 文人藝術家들이 抗敵救國의 旗幟아래 모이게 될 때까지 文壇에서는 “프로”文學과 民族主義文學 사이에 끊임 없는 論爭이 되풀이되었다.

이와 같은 渦中에서 中國新文學運動 初期 대부분의 文人들이 일정한 社團에 가입하여 나름대로의 主義를 포방하고 作品活動을 하였다. 그런데 老舍는 中國新文學史에서 그가 차지하는 比重과는 달리 社團活動이나 論爭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傍觀者的 立場에서 “유머리스”하고 諷刺的인 작품을 계속 써냈다. 그리하여 한때 “幽默大師”라는 칭호로 불리우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中日戰爭 발발 이후에는 또 태도가 급변하여 「中華全國文藝界抗敵協會」를 결성하여 이의 主席을 맡고 「作家戰地訪問團」을 이끌고 戰線을 누비고 다니는 등 적극적인 社會活動을 펴기도 하였다. 第二次世界大戰이 끝나고 中國大陸에 共產政權이 수립되자 당시 미국에 가 있던 老舍는 歡喜雀躍 歸國하였고, 여러가지 公職을 兼任하면서 意欲的인 作品活動을 계속하였고, 한때는 “人民藝術家”로 불리우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966년 文化大革命이 일어나자 老舍는 또 紅衛兵의 난동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이른바 四人幫이 무너지고 十年浩劫의 惡夢이 지나자 老舍는 또 그 명예가 회복되고 1978년 6월 3일에는 遺骨도 없는 상태에서 北京의 革命公墓에서 그를 위한 安葬儀式이 舉行되기도 하였다.

老舍의 生涯가 이처럼 奇崛하거니와, 실제 그의 作品世界에도 변화가 많았다. 初期에는 “유머리스”하고 諷刺的인 장편소설을 많이 썼으나 抗日戰爭 중에는 詩 외에 劇本創作에도 손을 대게 되었고, 新中國成立 이후에는 劇本創作 면에 成就가 많아 小說家로서보다 劇作家로서 그 이름이 더 유명하였으며, 作品態度에 있어서도 初期의 傍觀者的인 立場을 벗어나 能動的으로 現實에 參與하는 面貌를 보였다.

2. 小說가가 되기까지

老舍는 1899년 北京의 한 가난한 滿族人 집안에서 태어났다. 原名이 舒慶春이고, 字는 舍予이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그의 어머니는 어려운 살림을 꾸려 나가면서도 남에게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깨끗한 태도로 老舍를 교육하였다. 그리하여 老舍는 성격적으로도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그가 어려서 체험한 가난과 어머니의 義氣가 뒷날 자기가 주로 “유머”와 諷刺文學作品을 쓰게 되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自述하고 있다.¹⁾

老舍는 7세부터 서당에 나가 공부를 하다가 뒤에 小學에 전입하였다. 그리고 1913년에 北京師範學校에 입학, 1918년 동교를 졸업한 후에는 北京의 方家胡同 市立 小學 교장, 京師學務局北部勸學所勸學員을 지냈고, 1923년에는 天津市南開中學의 語文 교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1924년에 교육 훈련차 영국으로 떠나 주로 「옥스퍼드」대학에 체류하였으며, 한 때 「런던」대학 東方研究所에서 중국어 강의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가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때부터의 일이다. 老舍는 영국에 체류하는 6년 동안 시민 생활을 소재로 한 3편의 장편소설을 써서 본국으로 보내어 〈小說月報〉에 발표하였다. 〈老張的哲學〉, 〈趙子曰〉 및 〈二馬〉가 그것이다. 老舍의 自述에 의하면 그는 나이 27세가 될 때까지 자기가 作家가 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고 또 그러기 위하여 아무런 준비도 했던 일이 없다고 하였다. 오히려 평소의 그에게는 정치

1) 老舍 〈我怎樣寫《老張的哲學》〉…「我自幼便是個窮人，在性格上又深受我母親的影響——她是個楞挨餓也不肯求人的，同時對別人又是很義氣的女人。窮，使我好罵世；剛強，使我容易以個人的感情與主張去判斷別人；義氣，使我對別人有點同情心。有了這點分析，就很容易明白爲什麼我要笑罵，而又不趕盡殺絕。我失了諷刺，而得到幽默。據說，幽默中是有同情的。我恨壞人，可是壞人也有好處；我愛好人，而好人也有缺點。」

가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고 회고하고 있다.²⁾

老舍는 1927년에 처녀작 〈老張的哲學〉을 발표하기 전까지 散文에서는 일부 桐城派古文을 배웠고, 詩는 陸放翁과 吳梅村을 배웠으며³⁾, 小說로는 일부 唐人小說과 〈儒林外史〉 따위를 읽었을 정도의 文學素養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영국에 도착한 이후로 영어를 배워 外國小說을 몇권 읽었을 정도였다.⁴⁾ 그러나 五四運動 이후 白話文學이 興起하자 老舍도 다른 文學청년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때 남몰래 작품을 써본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⁵⁾, 외국에 있으면서 느끼는 寂寞感과 외국 소설을 접해보고 나서의 創作衝動, 그리고 許地山의 권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매일 한 두 시간 씩 소설을 쓰게 되었다. 그리고 老舍 스스로 이때 쓴 작품들에는 그가 어려서부터 겪어 온 生活과 관련하여 남을 압박하는 개인이나 국가에 대한 일종의 反抗意識이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⁶⁾

〈老張的哲學〉은 北京의 한가한 사람들의 우스꽝스런 생활 모습을 그린 것이고; 〈趙子曰〉은 北京의 학생들의 “아파트” 생활을 그린 것이다. 그리고 〈二馬〉는 中國人和 英國人の 생활 태도의 차이를 비교한 작품이다. 老舍는 이들 작품을 씀에 있어서 자기의 입장이 傍觀者的이었음을 是認하고 뒷날 이를 후회하고 있다.⁷⁾

- 2) 全上…「我的志願是在作事——那時候我頗自信有些作事的能力，有機會也許作國務總理什麼的。」
- 3) 〈老舍選集〉自序…「在五四運動以前，我雖然很年輕，可是我的散文是學桐城派，我的詩是學陸放翁與吳梅村。」開明書店 1951年 8月 出版。
- 4) 老舍〈我怎樣寫《老張的哲學》〉…「對中國小說我讀過唐人小說和〈儒林外史〉什麼的。」
- 5) 〈老舍選集〉自序…「到了五四運動時期，白話文學興起，我不由得狂喜。假若那時候，凡能寫幾個字的都想一躍而成爲文學家，我就也是一個。我開始偷偷的寫小說。」
- 6) 全上…「我多少寫出點反帝反封建的意思來。我說“意思”，那就是說我并沒能下功夫有系統的研讀革命理論的書籍，也不明白革命的實際方法。我只借着自己一点点社會經驗，和心中自幼兒積累下的委屈，反抗那壓迫人的個人或國家。〈老張的哲學〉與〈二馬〉都足以證明我確有這點“意思”。」
- 7) a) 老舍〈我怎樣寫《趙子曰》〉…「我看見了五四運動，而沒在這個運動裏面，我

1929년 6월, “런던”을 떠난 老舍는 “유럽”大陸으로 건너갔다. 약 3개월 동안 대부분 “빠리”에 머물면서 그 곳을 배경으로 <二馬>의 후반부를 완성코저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1929년 말, 老舍는 “유럽”을 떠나 船便으로 “싱가폴”에 도착하였다. 그가 “싱가폴”에 오게 된 것은 배삐가 중국까지 갈만큼 충분하지 못하였던 탓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南洋에 대한 평소부터의 동경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 같다.⁸⁾ “싱가폴”에 도착한 老舍는 우선 생활 방편으로 현지의 華僑中學 교원으로 취직하였다. 그리고 南洋開發에 있어서의 中國人의 役割을 중심으로 한편의 소설을 쓸 생각이었다. 당시 南洋의 華僑들은 현지에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재정적으로 국내의 정당이나 사회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만큼 여유있는 경제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을 쓰기 위하여는 우선 南洋의 華僑定着史를 연구하여야 했고 또 國內의 華僑政策과도 관련이 되는 것이어서 상당 기간의 자료 수집이 필요하였다. 거기 에다 또 廣東話, 福建話 및 “마레이시아”語까지 배워야했다. 결국 시간과 자금의 제약으로 원래의 집필 계획을 포기한 老舍는 학교에 오가는 길에서 언제나 만나는 어린이들을 소재로 <小坡的生日>을 쓰게 되었다.

老舍는 <小坡的生日>에서 華僑社會에서의 廣東人과 福建人의 不和 및 “마레이시아”人과 印度人의 愚昧함과 散漫함을 어린이 세계를 통하여 풍자적으로 묘사하였다. 老舍는 이 작품을 씀에 있어 中國, ‘마레이시아’, 印度의 어린이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면서 白人 소년은 일체 排除하였는데 여기에는 그 나름대로의 人種感情 같은 것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老舍에 의하면 그가 英國에 체류하는 동안 읽었던 西洋人의 소설에서는 西洋人이 주인공이었으며, 또한 그가 ‘싱가폴’에서 반 년 체

已作了事。是的，我差不多老沒和教育事業斷緣，可是到底對於這個大運動是個傍觀者。」

b) 老舍<我怎樣寫《二馬》>…「五四運動時期我是個傍觀者；在寫<二馬>的時節，正趕上革命軍北伐，我又遠遠的立在一傍，沒機會參加。」

8) 老舍<我怎樣寫《小坡的生日》>…「離離歐洲，兩件事決定了我的去處；第一，錢只够到新加坡的；第二，我久想看看南洋。」

류하는 동안 東洋人 소년과 白人 소년이 함께 어울려 노는 광경을 보지 못하였다 한다.⁹⁾

老舍는 〈小坡的生日〉에서 어린이 세계의 天真性을 버리지 못하면서, 反面 어른들 세계의 思想性을 加味하려 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 작품을 幻想과 寫實이 엮여진 것이 되고 말았다. 老舍는 ‘싱가폴’에 머문 4개월 동안 약 4만자를 쓰고, 나머지 약 2만자 분량은 뒤에 上海에 돌아와서 완성하였다.

〈小坡的生日〉를 발표하고 나서 老舍는 두 가지 점에서 스스로 만족스럽다고 말하였다. 하나는 자기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도 아직 童心의 세계를 완전히 잃지 않았다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그야말로 간결 명료한 문장으로도 충분히 소설을 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그는 밝히고 있다. 老舍는 이 작품을 쓰고 나서 비로소 白話의 역량을 깨달았다고 아울러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때부터 평민들이 익히고 쓰는 千字文 정도로도 훌륭한 문장을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¹⁰⁾

老舍는 ‘싱가폴’의 華僑中學에서 국어 즉 中國語를 담당하면서 학생들이 제출한 작문 숙제 내용과 그들의 일상 언동등을 통하여 크게 충격을 받고 스스로의 사상 면에서도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리고 점차 「새로운 사상은 東方에 있는 것이지, 西方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¹¹⁾ 그리고 그의 이러한 사상적인 변화는 창작 태도 면에도 영향을 끼쳐 愛情小說 따위를 쓰지 않기로 결심을 하기에

9) 全上…「在新加坡住了半年，始終沒見過一回白人的小孩與東方小孩在一塊玩耍。」

10) 全上…「我對這本小書仍然最滿意，不是因爲別的，是因爲我深喜自己還未完全失赤子之心——那時我已經三十多歲了。」

最使我得意的地方是文字的淺明簡確。有了〈小坡的生日〉，我才真明白了白話的力量；我敢用最簡單的話，幾乎是兒童的話，描寫一切了。我沒有算過，〈小坡的生日〉中一共到底用了多少字；可是它給我一點信心，就是用平民千字課的一千個字也能寫出很好的文章。」

11) 全上…「開始覺到新的思想是在東方，不是在西方。」

까지 이른다. 그리고 서둘러 본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하였다.¹²⁾ 老舍는 ‘싱가폴’에 와서 우선 그곳 청소년들의 급진적인 사상과 사회 의식에 충격을 받았다. 이는 그가 中國을 떠나 영국으로 가기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고, 또 영국이나 ‘유럽’에 체류하는 동안 서양의 청소년 학생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현상이었다. 老舍는 이를 東方民族이 인류의 모든 압박을 한몸에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규정지었다.¹³⁾

1930년 上海에 돌아와서 〈小坡的生日〉를 탈고한 老舍는 곧 北平으로 가서 하는 일 없이 3, 4개월을 보냈다. 그가 胡絮青女士와 결혼한 것이 무렵이다. 그뒤 山東의 齊魯大學 교수로 초빙되어 濟南에 가서 사는 동안 시내 이곳 저곳에 남아있는 砲彈 자욱을 보고 ‘五三’ 사건에 관한 자료를 약 반 년 동안 모아 이를 근거로 〈大明湖〉의 집필을 구상하게 되었다. 老舍는 이 작품을 엮어 나감에 있어서 ‘五三’ 사건 당시의 참혹한 전쟁 장면만을 묘사하지 않고 소설로서의 이야기 즐거리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느 가난한 母女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애정 문제를 결부시켰다. 肉欲과 돈의 제물이 된 어머니는 마침내 어린 딸을 버리고 大明湖에 몸을 던지고 만다. 그리고 딸도 결국 그의 어머니와 같은 신세가 되어 호수에 몸을 던지려 했으나 어느 청년에 의하여 구출되고 마침내는 그와 결혼하게 된다. 그러나 그 남자는 ‘五三’ 사건에 말려 살해되고 만다.

老舍는 이 해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 〈大明湖〉를 탈고하였고 〈小說月報〉에 주어 〈小坡的生日〉 연재가 끝나는대로 계속 연재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一二八’ 事變으로 말미암아 원고 전부가 인쇄 공장에서 불타버리고 말았다. 여러 사람들이 다시 쓰라고 권하기도 하였으나 副本을 남겨

12) 全上…「一到新加坡, 我的思想猛的前進了好幾丈, 不能再寫愛情小說了! 這倆, 也就使我決定趕快回國來看看了。」

13) 全上…「在今日而想明白什麼叫作革命, 只有到東方來, 因爲東方民族是受着人類所有的一切壓迫; 從哪兒想, 他都應當革命。」

놓은 것도 아닌데다가 그 스스로 별로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았던 작품이었으므로 다시 쓰는 일을 포기하여 버리고 말았다.

老舍는 그의 처녀작〈老張的哲學〉부터 〈大明湖〉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품을 〈小說月報〉를 통하여 연재하였고, 연재가 끝나는데로 商務印書館에서 이를 單行本으로 발행하곤 하였다. 그러나 〈小說月報〉가 停刊되고 말았으므로 老舍는 〈現代〉라는 잡지에 長篇을 써 주기로 약속하였다. 老舍의 말에 의하면 〈現代〉잡지는 上海事變 이후 쓸 만한 것으로는 유일한 月刊文藝誌였다 한다.¹⁴⁾ 〈貓城記〉는 老舍가 〈小說月報〉 이외의 잡지에 써 준 첫번째 원고이고 또한 商務印書館이 아닌 다른 출판사에서 출판된 첫번째 장편소설이기도 하다. 〈貓城記〉는 〈現代〉잡지에 연재가 끝난 뒤 現代書局에서 출판되었었다.

〈貓城記〉는 격변하는 國內外 政治情勢 속에서 中國의 軍閥, 政客, 통치자 또는 일부 前進的 사상을 지닌 인물들이 입으로 허울좋은 말만 늘어놓을 뿐 실속있는 일은 하나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풍자적인 수법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하여 老舍는 스스로 자기와 같이 감정은 있으면서도 세상 일에 대한 별다른 식견이 없는 사람이 國事가 제대로 되어 나가지 못하고 軍事와 外交 면에서 당국자들이 여러가지로 실패를 거듭하는 것을 보게 되면 쉽사리 분개하고 실망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것저것 따지고 참견하려 들게 마련이라고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다.¹⁵⁾ 결국 老舍 자신 時政人物을 비판 풍자하기 위하여 이 작품을 쓴 셈이 된다.

이 작품이 발표된 뒤, 누군가가 이 작품에 ‘유머’가 섞이지 않아서 좋았다고 평을 한 데 대하여 老舍는 오히려 반대되는 견해를 나타내었

14) 老舍〈我怎樣寫《描城記》〉…「施蟄存兄主編的〈現代〉雜誌爲滬戰後唯一的有起色的文藝月刊。」

15) 全上…「對國事的失望，軍事與外交種種的失敗，使一個有些感情而沒有多大見解的人，像我，容易由憤恨而失望，失望之後，這樣的人想規勸，而規勸總是婦人之仁的。」

다. 老舍에 의하면 〈猫城記〉는 諷刺的인 뜻을 담은 작품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유머’ 감각이 그 속에 섞여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 諷刺와 ‘유머’는 이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확실히 서로 다르지만 이를 응용함에 있어서는 영원히 서로 엄격히 떨어질 수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¹⁶⁾

老舍는 〈猫城記〉에 대하여 失敗를 自認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이 작품에서 의도적으로 ‘유머’를 배제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諷刺와 ‘유머’에 대하여 老舍는 나름대로 재미있는 분석을 하고 있고, 이러한 감각의 운용과 문학과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나름대로의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老舍에 의하면 諷刺를 잃고 대신 ‘유머’를 얻었다면 그래도 괜찮다는 것이다. 諷刺와 ‘유머’는 심리 상태 면에서 서로 다르지만 이러한 감각을 지니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聰明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聰明함이 잘 운영되기만 하면 그 결과가 비록 훌륭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문장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글을 쓴 이의 마음이 들어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老舍는 그가 〈大明湖〉와 〈猫城記〉를 씀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유머’를 배제하여 결과적으로 두 작품이 모두 실패작이 되고 말았지만 이러한 실패를 통하여 근엄한 태도로 작품을 쓰는 훈련을 쌓은 셈이어서 그에게는 하나의 유익한 경험이 되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老舍는 1951년 8월에 출판된 〈老舍選集〉의 序文에서 특히 〈猫城記〉에서 그가 당시의 軍閥, 政客 및 통치자를 풍자함에 있어서 일부 진보적 인물까지 두루 휘잡아서 비난하였던 것은 그가 과거에 직접 革命에 참가했던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지른 과오였으며, 앞으로는 그러한 책을 다시 찍어내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¹⁷⁾ 이러한 내용은 中共政權 수립 이

16) 企上…「〈猫城記〉根本應當幽默，因爲它是篇諷刺文章；諷刺與幽默在分析時有顯然的不同，但在應用上永遠不能嚴格的分隔開。」

17) 〈老舍選集〉自序…「我的溫情主義多于積極的鬭爭，我的幽默冲淡了正義感，最糟的，是我，因爲當時政治的黑暗而失望，寫了〈猫城記〉，在其中，我不僅諷

후에 그가 행한 이른바 ‘自我檢討’의 형식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眞實性 여부를 가릴 길이 없거니와, 1967년의 紅衛兵 난동 때에 그가 겪었던 悲運도 어찌면 그의 初期作品의 思想性과 관련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推測을 낳게도 한다.

〈離婚〉은 그 篇幅이 12만자에 달하는 長篇이다. 그러나 老舍는 이 작품을 위하여 오래 構想해 왔던 것도 아니고 또 執筆期間이 오래 걸렸던 것도 결코 아니었다. 老舍는 〈現代〉잡지에 실리고 있는 〈貓城記〉의 연재가 끝나는데로 그 원고를 良友公司에 주어 〈良友文學叢書〉에 포함시켜 출판하기로 하였었다. 그런데 또 이를 연재하여 오던 〈現代〉잡지의 발행 서점인 現代書局에서도 〈貓城記〉를 단행본으로 낼 생각이었다. 이에 叢書 간행 계획에 차질이 생긴 良友公司에서 품이 달아서 老舍에게 〈貓城記〉에 대신할 만한 작품을 써줄 것을 요구하였고, 老舍도 쉽게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여름 방학이 시작되기 전 학기말 시험 때부터 쓰기 시작하여 8월 15일에 넘겨 주기로 약속했던 것을 1개월이나 앞당겨 7월 15일에 탈고하였다. 말하자면 아무런 생각없이 쉽게 응락하고 쉽게 써 낸 작품이다. 이러한 결정과 작업을 강행함에 있어 老舍는 결사적인 각오와 영감은 때한가지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하였었다고 그의 창작 회고록에 적고 있다.¹⁸⁾

老舍는 〈離婚〉을 構想하기에 앞서 〈大明湖〉와 〈貓城記〉 두 작품의 失敗가 ‘유머’의 배제에 있었음을 감안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작품의 집필에서는 ‘유머’에 복귀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또 배경과 인물 모두 자기의 고향인 北平에서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北平의 거리는 그에게 익숙한 곳이었으므로 금세 그의 머리에 작품 배경이 될만한 장

18) 老舍「我怎樣寫《離婚》」……「我冒了汗！可是我硬着頭皮答應下來；知道拚命與靈感是一樣有勁的。」

19) 老舍「我怎樣寫《離婚》」……「我冒了汗！可是我硬着頭皮答應下來；知道拚命與靈感是一樣有勁的。」

면들이 떠올랐고, 이어 그가 청년시절에 거리에서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한 인물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남자의 거동과 차림새는 당시 老舍의 눈에는 참으로 멋쟁이로 비쳤었다. 老舍는 곧 이 남자를 〈離婚〉의 주인공으로 삼았고, 그의 주변에 離婚 문제로 골치를 앓는 사람들을 등장시켜 주인공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여러가지로 만들어 나갔다.

老舍는 〈離婚〉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여기지를 않았다. 그에 의하면 〈離婚〉은 지나치게 잔 솜씨를 부린 작품이란 느낌이 들었고 작품을 통하여 번져나오는 웃음소리가 너무 약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다. 다만 離婚을 쓰고 나서 비로소 그는 작품에 있어서의 이른바 技巧가 무엇이고 또 통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술회하고 있다.¹⁹⁾

老舍는 1933년에 山東 齊魯大學의 文學院長의 직책을 맡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소설을 쓰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1934년 봄 그는 半月刊 문예지 〈論語〉의 청탁으로 장편 연재물 〈牛天賜傳〉을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매회 4,5천자 분량을 쓰도록 되어 있는 이 작품을 집필함에 있어서 老舍는 시간의 부족과 濟南 지방의 혹독한 더위로 인하여 심한 고생을 겪어야 하였다. 老舍 자신 이 작품의 집필 과정을 회고하는 글에서 당시의 어려웠던 사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우선 老舍는 작가가 작품을 집필할 당시의 생활 여건이 그 작품의 成敗를 가름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전제하고나서 그가 〈牛天賜傳〉을 집필할 때의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했던 것도 결국 이 작품의 수준이 그리 높지 못한 것과 관련이 된다고 풀이하고 있다.²⁰⁾

老舍는 이 작품의 집필 속도가 더딘 데 대하여 매우 초조한 생각이 들었던 듯 하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그는 1934년 3월 23일부터 이 작품

19) 全上…「〈離婚〉의 笑聲太弱了. 寫過六七本十萬字左右的東西, 我才明白了一点何謂技巧與控制.」

20) 老舍〈我怎樣寫《牛天賜傳》〉…「熱, 亂, 慌, 是我寫〈牛天賜傳〉時生活情形的最合適的三個形容字. 這三個字似乎都與創作時所需要的條件不大相合. “牛天賜”產生的時候不對, 八字根本不够格局!」

을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해 7월 4일에 이르기까지 근 3개월 동안에 겨우 2만여자 밖에는 쓰자를 못하였는데 이는 내내 학교일에 쫓겼기 때문이었다. 오늘 열 자 남짓 쓰고 내일 열 자 남짓 쓰는 식으로 나가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한 주일 쯤 건너뛰는 것이 보통이었으니 그야말로 “그것은 詩神에게 손을 내밀어 용돈을 빌어 쓰는 꼴이지 창작은 아니었다.”고 회상할 정도였다. 그러다가 방학이 되자 집필 작업도 진전이 빨라 7월 19일까지의 보름 사이에 5만자 분량을 확보할 수 있었고, 8월 10일에는 드디어 이 작품을 탈고할 수가 있었다.

시간에 쫓기고 더위에 시달리면서 이 작품을 쓰는 동안 老畝는 교원 생활을 청산하고 專業作家가 될 궁리를 골똘히 하였다. 그리고 6월 29일에 최종적으로 교직 사퇴를 결심하였다. 이 무렵 上海에 있는 친구가 역시 專業作家로 전향하라고 권하면서 老畝를 上海로 불렀다. 그리하여 8월 19일에 濟南을 떠나 上海로 가기로 작정하고 작업을 서둘러 8월 10일에 탈고하였다. 그러므로 〈牛天賜傳〉은 老畝의 ‘야마추어’ 작가로서는 마지막 작품이 된 셈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실상 스스로는 아무런 思想이나 意志나 行爲가 없으면서도 전적으로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추켜세움을 받고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한 소년이다. 老畝는 어린이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으며, 마치 압박 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을 위하여 살길을 모색하는 것처럼 어른스럽게 꾸며지고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하는 어린이의 처지를 ‘유머’를 섞어가며 작품으로 엮어 나갔다.

‘유머’ 감각을 살려 장편 연재 소설을 쓴다는 것은 애당초 쉬운 일이 아니었다. 老畝는 바로 이 점을 들어 〈牛天賜傳〉의 수준이 그리 높지 못할 까닭을 설명하고 있다. 老畝의 견해에 의하면 ‘유머’ 작품이라 해서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매기 4,5천자씩 나누어 써야 하기 때문에 작품 속의 인물 또는 사건을 자연스럽게 발전시킬 수

가 없었으며, 어쩔 수 없이 기별로 여기저기 장난스러운 장면을 가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기에 이 작품도 기별로 읽으면 신나고 재미있게 느껴지나 전편을 함께 읽게 되면 그저 떠들석하고 분주할 뿐 별다른 맛을 느낄 수가 없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3. 〈駱駝祥子〉 및 其他

專業作家가 되어서 作品活動에만 從事하기 위하여 齊魯大學의 敎職을 사임하고 上海에 나온 老舍는 上海에서 作家로서의 生活을 營爲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때마침 「一二八」事變이 있는 뒤여서 출판계가 不景氣에 허덕이고 있었고, 거기에다 創作物을 흡수소화해 줄 만한 文藝誌가 매우 적었다. 이에 老舍는 친구의 권유도 있고 해서 다시 山東大學 敎수직을 맡기로 하였다. 그러나 老舍의 마음은 못내 편치 않았다. 애당초 그가 외국으로부터 北平으로 돌아올 때에도 그는 專業作家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으나 가까운 친구들의 권고도 있고 해서 齊魯大學의 敎職을 맡았던 것이다. 이번의 경우에도 老舍는 가족의 生計를 위하여 매월 일정한 액수의 고정 수입이 필요했던 것이다.

山東大學에서 2년 근무한 뒤 학생 '데모'로 몇몇 동료 敎수와 함께 敎職을 사퇴한 老舍는 靑島로 옮겨 가 그곳에서 살면서 원고료 수입으로 생활을 꾸려나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때가 바로 中日戰 개시 1년 전이었다. 專業作家로서의 생활을 결심한 老舍는 매년 2편 정도의 장편소설을 써낼 계획이었다. 그리고 만일 專業作家로서의 第一彈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시 大學의 강단에 복귀라도 할 셈이었다. 어찌면 영영 글 쓰는 일에서 손을 떼게 될 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만큼 專業作家로서의 第一彈은 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 또 그만큼 그는 신중을 기하였다.

〈駱駝祥子〉는 바로 老舍의 專業作家로서의 第一彈이다. 老舍는 이 작

품을 언제부터 쓰기 시작하였는지 확실히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작품의 소재에 대한 착상은 1936년 봄부터 있어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山東大學에 있을 때 한 친구와 서로 閑談을 나누던 중 그 친구가 우연히 자기가 北平에 있을 때 고용했던 車夫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다. 이야기 내용인즉 그 車夫가 한 때 자기 돈으로 人力車를 사서 영업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경우를 세 번이나 되풀이 하였으나 끝내 빈털털이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매우 간단한 이야기에 불과하였으나 그때 老舍는 그 이야기 줄거리로 한 편의 소설을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었다.²¹⁾ 그 친구는 또 어떤 車夫는 군대에 붙들려 갔으나 군대 이동의 틈을 타서 군대에서 부리던 낙타 3마리를 끌고 돌아와서 오히려 轉禍爲福이 된 일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 주기도 하였다. 물론 老舍는 그 두 車夫의 이름이 무엇이고 고향이 어디인지 등에 관하여 물어 볼 나위도 없었다. 다만 그는 車夫와 낙타에 관한 이야기만을 기억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駱駝祥子〉의 이야기 줄거리의 핵심이 된 것이다.

老舍는 이 해 봄부터 여름 사이에 그 간단한 이야기 줄거리를 어떻게 하면 10여만 자에 달하는 한 편의 소설로 꾸며 낼 수 있을가 하고 줄곧 궁리를 하였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老舍는 역시 무엇인가에 홀린 사람처럼 재료들을 모아 나갔고, 마음속에서 주인공의 생활이나 모습도 여러 번 바뀌었다. 老舍는 우선 北平의 西山에서 오래 살았던 齊鐵恨씨를 찾아가서 낙타의 생활 습관에 대하여 알아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老舍는 곧 車夫를 중심으로 하고 낙타는 보조 수단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車夫의 경우 멀리 가지 않고서도 쉽사리 그들의 생활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만일 낙타를 중심으로

21) 老舍〈我怎樣寫《駱駝祥子》〉…「記得是一九三六年春天吧, “山大”的一位朋友跟我閑談, 隨便的談到他在北平時曾用過一個車夫. 這個車夫自己買了車, 又賣掉, 如此三起三落, 到末了還是受窮. 聽了這幾句簡單的敘述, 我當時就說; “這頗可以寫一篇小說”」

소설을 엮어 나가기로 한다면 낙타들이 사는 草原과 낙타의 생태를 이해하기 위하여 외국 나들이를 하여야 할 판이었다. 이에 老舍는 낙타와 祥子를 하나로 결합시키되 낙타에게는 祥子를 끌어내는 정도의 책임을 맡기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駱駝祥子〉의 基本配役이 끝나자 老舍는 곧 작품 배경 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車夫에게 작품의 주인공으로서의 확실한 地位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선 車夫의 종류와 그들의 사회환경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祥子が 어떠한 車主의 人力車를 빌려서 영업을 하며 그 조건은 어떻고 또 어떠한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게 되는가 하는 점도 살펴야 하였다. 그리고 車夫의 社會를 확대하여 지위가 높은 사람들까지도 이야기 속에 끌어들이도록 하였다. 아울러 車夫의 생활과 日氣, 氣溫과의 관계도 살펴야 하였고, 인간으로서의 車夫의 욕망이나 車夫의 가족 상황 및 車夫의 言語나 姿態面에서의 특징까지도 상세히 조사를 하였다.

1936년 여름, 老舍는 山東大學의 교직을 사임하고 이내 〈駱駝祥子〉의 집필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곧 〈宇宙風〉이란 잡지에 월 2段씩 1년간 도합 24段을 연재하였다.²²⁾ 이 소설은 한 가난한 시골 청년이 도시로 나와 소박한 꿈을 안고 열심히 人力車를 끌지만 舊社會의 여러가지 부조리와 박해로 끝내는 비참하게 좌절하고 만다는 것을 이야기의 줄거리로 삼고 있다.

老舍는 이 작품을 다 썼을 때 〈宇宙風〉의 편집자에게 이 작품이 자기에게는 가장 만족스럽다고 말을 했었는데 서점에서는 이 소설을 단행본으로 출판할 때 곧 작자의 이러한 말을 광고 문안으로 작성하여 대대적으로 선전하기도 하였다. 老舍가 이 작품을 만족스럽게 여겼던 것은 다

22) 老舍의 부인 胡絮青이 老舍의 〈我怎樣寫《駱駝祥子》〉라는 글에 붙인 注에 보면…「據查〈宇宙風〉是一九三六年九月第二十五期開始連載，至一九三七年九月第四十八期續完。」이라고 되어있다. 參見 胡絮青編〈老舍論創作〉1980, 上海文藝出版社.

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에서였다. 첫째, 老舍는 이 작품을 위하여 오랫동안 구상을 하였고 또한 수집된 자료도 충분하였으므로 묘사가 정확하였고 늘이거나 부연할 필요가 없었다. 둘째, 專業作家가 되었으므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작품에 몰두할 수가 있었고, 붓을 쉬는 사이에도 계속 구상하였으므로 자연스럽게 묘사가 빚진하였다. 셋째, 억지섞인 ‘유머’를 포기하였으므로 읽는 이로 하여금 짜증나게 하는 일이 없어졌고, 더러 ‘유머러스’한 장면이 나온다 해도 그것은 작품 내용 자체에서 일어나온 것이지 표현에서 꾸며지는 것은 아니어서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넷째, 문장이 평이하고, 北平口語를 많이 사용하였으므로 신선하고 활발한 느낌을 주었으며 낭송이 가능할 정도였다. 실지로 〈駱駝祥子〉는 北京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작품 전체를 통하여 北京지방의 색채가 농후하다.²³⁾

老舍는 또 스스로 이 작품에 대하여 몇 가지 결함도 인정하고 있다. 老舍는 무엇보다도 이 작품의 끝맺음이 지나치게 황급했던 점에 대하여 불만스럽게 생각하였다. 연재 소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였으나 2, 3段 더 써서 부드럽게 마무리 지었어야 했다고 老舍는 말하고 있다.²⁴⁾

〈駱駝祥子〉가 〈宇宙風〉에 절반쯤 연재되었을 때 中日戰爭이 발발하여 上海에서 停刊이 되었다. 老舍 자신 이 작품이 전부 연재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지 못할 정도였다. 그뒤 〈宇宙風〉이 廣州로 옮겨가자 우선 〈駱駝祥子〉를 단행본으로 간행하였다. 그러나 인쇄가 막 끝날 무렵

23) 中南七院校編〈中國現代文學史〉上冊 p. 407…「〈駱駝祥子〉具有濃郁的北京地方色彩。作者曾說；“我生在北平，那裏的人，事，風景，味道，和賣酸梅湯杏兒茶的吆喝的聲音，我全熟悉。一閉眼我的北平就是完整的，像一張彩色鮮明的圖畫浮立在我的心中。我敢放膽地描畫它。它是條清溪，我每一探手，就摸上條活潑潑的魚兒來。」原載〈抗戰文藝〉第七卷第一期(1941. 1. 1) 老舍〈三年寫作自述〉。1979, 長江文藝出版社。

24) 老舍〈我怎樣寫《駱駝祥子》〉…「祥子自然也有許多缺點。使我自己最不滿意的是收尾收得太慌了一點。因為連載的關係，我必須整整齊齊的寫成二十四段；事實上，我應當多寫兩三段才能從容不迫的刹住。」

廣州가 日軍의 손에 함락되었고 인쇄된 작품도 송두리째 그들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 〈宇宙風〉이 다시 桂林으로 옮겨 가서 그곳에서도 출판의 기회가 있었으나 별로 보급이 되지 못하였고, 뒷날 文化生活出版社에서 紙型을 사서 後方에서 인쇄 간행한 것이 일부 보급이 되었었다.

〈駱駝祥子〉는 老舍의 여러 작품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中共政權 수립 이후 大陸에서 출판된 中國現代文學史類에서는 한결같이 이 작품의 사상성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고 있고²⁵⁾, 老舍 자신 그가 행한 이른바 自我檢討에서 그 스스로는 이 작품을 통하여 감히 ‘革命’을 큰 소리로 외쳐낼 수도 없었고, 가까스로 이 작품의 끝머리에 個人主義의 조속한 매장을 염원하는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은 ‘祥子’가 왜 造反을 하지 않았는지 확실하게 말을 하지 못한 자기에 대한 책망이기도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駱駝祥子〉가 막 발표되었을 때 어느 노동자가 “祥子が 그렇게 죽어 간다면 우리에게는 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하고 질문을 해 왔는데 자기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다.²⁶⁾

4. 劇作家로서의 轉換

老舍는 나이 40이 되어서야 劇本을 쓰기 시작하였다. 老舍의 말에 의

25) a) 王瑤編著〈中國新文學史稿〉 p. 232-p. 234: 「他後來自己檢討說; “我自己也必須承認; 我是個善於說故事的, 而不是個第一流的小說家. 我的溫情主義多於積極的鬪爭, 我的幽默沖淡了正義感.” 這雖有點自謙, 但也指明了他作品中的思想性是比較薄弱的.」 1979, 香港 龍門圖書公司

b) 丁易著〈中國現代文學史略〉 p. 272: 「作者幼年的小市民的“命該如此”的思想該是一個因素; 其次, 當國內革命鬪爭階級鬪爭最尖銳的時候, 作者却遠在國外, 沒有和革命發生關係; 第三, 六年時期在英國資本主義社會裏面, 思想上也不能不受影響.」 1957, 北京 作家出版社.

c) 二十二院校編寫組〈中國當代文學史〉 1 p. 325: 「祥子苦難的命運從一個側面深刻地揭露了舊社會的黑暗. 由于作者當時看不清革命的道路, 作品中流露了低沉的情緒.」 1980, 福建人民出版社.

26) 〈老舍選集〉…「在〈祥子〉剛發表後, 就有工人質問我; “祥子若是那樣的死法, 我們還有什麼希望呢?” 我無言對答.」

하면 그가 나이 27세에 처음 소설을 쓰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소설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소설을 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이 40이 되어 劇本을 쓰기 시작하였을 때에도 그는 劇本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劇本을 썼다 한다. 그리고 劇本에서 幕을 나누는 것은 소설에서 章을 나누는 것과 같은 정도로 생각하였으며, 劇本은 그저 장편의 對話 내용을 글로 적는 것 정도로 생각했었다 한다. 老舍가 그의 제 1부 劇本 <殘霧>를 썼을 당시의 상황이 그러하였다. 약 6만자 분량의 四幕劇 劇本을 老舍는 반달 만에 써냈다.

老舍가 <殘霧>를 쓰게 된 데에는 또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당시 文協에서는 基金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극을 공연하기로 하고 老舍에게 諷刺劇의 집필을 위촉하였다. 老舍에게 이 劇本의 집필을 위촉한 것은 그가 劇作家라서가 아니고 그가 諷刺에 능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당시 몇몇 劇作家와 演出가가 또 그에게 助言을 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修正에 도움도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老舍는 그저 起草를 한다는 생각으로 선뜻 이를 수락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공연 기일에 맞추어 반 달의 기한이 주어졌으므로 老舍는 그 기한 내에 劇本을 써낸 것이다. 이 기회에 老舍는 劇本 作法도 배워 볼 심산이었다.

中日戰爭이 발발되자 老舍는 濟南을 떠나 武漢으로, 그리고 武漢에서 다시 重慶으로 거처를 옮기고 있었고, 1938년 3월에는 湖北省 漢口市에서 결성된 「中華全國文藝界抗敵協會」의 主席을 맡기도 하였다. 老舍가 <殘霧>를 탈고한 1939년 5월 4일에는 마침 또 日軍의 重慶 大爆擊이 있던 날이기도 하다. 이에 연주 공연은 연기되었고, 老舍는 中華全國文藝界抗敵協會와 戰地黨政委員會, 政治部第三廳 공동으로 결성한 「作家戰地訪問團」을 이끌고 戰地에서의 위문 활동을 펴기 위하여 서둘러 西北 지구로 떠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의 劇本이 어떠한지, 연극이 공연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겨를도 없었다. 老舍가 戰地 위문 활동을 마치고 다시 重慶에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6개월 뒤였다. 그 사이 친구들에 의

하여 劇本도 출판되고 연극도 공연이 되었었다. 老舍는 그를 위하여 남겨진 上演稅 3백원을 몽땅 털어 演劇界 人士들을 초대하고 不在中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렇게 하여 老舍는 劇界와 관련이 생긴 셈이었다.

〈殘霧〉의 공연이 있는 뒤 老舍는 또 回教救國會의 청탁으로 回族과 漢族의 合作을 소재로 한 四幕劇劇本 〈國家至上〉을 쓰게 되었다. 宋之的과 共編한 이 劇本은 다분히 抗戰文藝物의 성격을 띤 것으로서 重慶, 昆明, 成都, 大理, 蘭州, 西安, 桂林, 香港, 西康 등지에서 여러 차례 공연되었고 劇本도 여러 차례 수정이 거듭되었다. 老舍는 〈國家至上〉이 〈殘霧〉에 비하여 劇本을 쓰는 요령을 어느 정도 터득한 뒤에 나온 것이어서 그것이 뛰어난 작품은 못된다손 치드라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큰 수확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戰時의 황당 중에 이루어지는 것들이라서 많은 일들이 거칠고 치졸함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오히려 비평가들의 理想主義에 一針을 가하기도 하였다.²⁷⁾

〈國家至上〉이 抗戰宣傳劇으로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자 老舍는 잇달아 〈張自忠〉, 〈大地龍蛇〉, 〈歸去來兮〉, 〈誰先到了重慶〉 등의 劇本을 썼고, 스스로 文藝創作이 國家 발전을 하위여 宣傳機能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老舍의 관심은 점차 국민들의 抗戰意識을 鼓吹하는데 효과가 있는 通俗文藝 쪽으로 기울었다. 老舍가 中日戰爭 발발 이후 전혀 생소한 劇本創作에 손을 대게 된 것도 어쩌면 연극의 형식이 소설보다 통속적이고 대중적이며 抗戰意識 鼓吹에 효과적이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老舍는 中日戰爭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鼓詞나 小調 등 民間通俗文藝形式을 빌어 작품을 쓸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전쟁이 벌어지고 그의 생활 근거지가 敵에게 함락되는 등 커다란 변동이 생기자 老舍는 民間通俗文藝形式을 빌어 국민들의 抗戰意識을 鼓吹하는 문제를

27) 老舍〈閑話我的七個話劇〉…「回漢一向隔膜，有了這麼一齣戲，就能發生這樣的好感，誰說文藝不應當負起宣傳的任務呢？」

본격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는 老舍 개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老舍가 濟南 함락 이후 武漢으로 빠져나와 있을 무렵 文藝協會에서 이미 「文章下鄉」, 「文章入伍」 등의 口號를 내걸고 있었고, 教育部, 中宣部, 政治部 등 국가 기관에서도 文人들에게 그러한 機能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 무렵 中國現代劇의 開山鼻祖라 할 수 있는 田漢이 또한 武漢에 와 있었다. 그는 舊劇改革에 정열을 쏟고 있는 터여서 老舍보고도 舊形式에 새로운 내용을 담는 작업을 試圖해 보라고 적극 권장하였다. 당시 국민 대중은 舊劇의 形式과 歌唱에 친숙해 있었고 新文藝形式에 대하여는 오히려 어느정도 생소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舊形式에 새로운 내용을 담는다면 國民의 抗戰意識을 고취하는데에는 보다 효과적인 가능성도 있었다. 실지로 馮煥章 장군 같은 사람은 軍中에 몇몇 河南 지방의 墜子 가락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있었고, 畫家를 청해다가 抗戰 중의 “西湖景”을 그리게 하고 老舍에게 歌詞를 위촉하여 ‘스라이드’를 비치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여 士氣振作 면에서 크게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老舍는 舊劇의 形式과 歌唱에 대하여도 그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므로 鼓詩나 墜子の 唱法을 따로 배워 通俗文藝作品의 창작에도 손을 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무렵 老舍는 何容이 主編으로 있는 〈抗日到底〉라는 月刊 通俗文藝誌에 전속작가의 신분으로 꽤 여러 편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그 가운데 3편의 鼓詞와 4편의 舊劇, 그리고 舊小說 형식의 작품 1편을 묶어 〈三四一〉이라는 제목의 작품집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老舍는 이 무렵의 그의 舊形式에 新內容을 담기 위한 通俗文藝作品의 試圖에 대하여 뒷날 스스로 평가를 내리고 新舊妥協의 試圖가 결국 일종의 投降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포기하고 말았으나 그러한 기회를 통하여 民間言語가 어떠한 것이며, 또 中國語言의 자연스러운 韻律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후회는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²⁸⁾

28) 老舍〈我怎樣寫通俗文藝〉…「新的, 是新的, 舊的是舊的, 妥協就是投降! 因

小說, 話劇 그리고 鼓詞와 劇本 등 다양한 體裁를 섭렵하면서 創作活動을 계속하여 온 老舍는 1940년 2월부터 시작하여 약 2년에 걸쳐 長篇 游記詩의 창작을 試圖하였다. 1939년 여름 老舍는 「中華全國文藝界抗敵協會」의 파견으로 北路慰問團을 이끌고 西北 方面의 軍慰問에 나서 전후 5개월 여에 걸쳐 약 2만 리를 여행하였었다. 老舍는 長篇敘事詩로 이 여행을 기념하고 싶었다. 老舍가 詩에다 그 내용을 담으려 한 것은 특별히 그가 詩才가 있어서도 아니었다. 다만 舊詩와 鼓詞를 써 본 경험을 살려 그야말로 詩를 쓰는 연습도 하고 싶었었다. 그리하여 그는 ‘舊詩新寫’ 또는 ‘中菜西吃’의 방식에다 鼓詞用韻의 방법을 채용하여 1만 행의 長詩를 쓸 생각이었다. 그러나 1년 동안 겨우 27段 3천 行을 완성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나머지 자료가 3천 行 정도 더 쓸 수 있는 분량이 되었지만 형식에 대한 회의와 건강 악화로 더 계속하지를 못하고 있다. 1941년 말에 애당초 계획의 완성이 어렵다고 보고 우선 써놓은 분량 28段 만을 文獎會에 주어 간행하도록 하였다.

中日戰爭이 발발된 이후 5년 동안 老舍는 장편소설을 쓰지 못하였다. 그동안 老舍는 抗戰宣傳에 몰두하였었고, 남이 청탁하는대로 글을 써주는 터여서 장편소설을 쓸 겨를이 없었다. 1942년 여름 重慶으로부터 四川省의 北碚로 온 老舍는 주변 환경이 重慶보다 조용하고, 또 되지않은 劇本은 그만두고 다시 소설을 쓰라는 친구들의 권고도 있는데다 군사 지식이 많은 친구가 가까이에 있고 해서 전쟁을 소재로 모처럼 중편소설을 써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5,6만 자를 쓰고 보니 그대로 끝을 맺기가 어려워 그해 말까지 더위와 신병 그리고 생활고를 극복하면서 약 11만 자 분량의 장편소설 〈火葬〉을 탈고하였다. 다 쓰고나서 老舍는 이 작품이 실패작이라는 것을 자인하였다. 그러나 老舍는 그것이 잘못된 작품인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의 시간과 경비가 아까워서 그대로

此, 在試驗了不少篇鼓詞之類的東西以後, 我把它們放棄了. 顯然, 我放棄了舊瓶裝新酒這一套, 可是我並不後悔; 功夫是不欺人的. 它教我明白了什麼是民間的語言, 什麼是中國語言的自然的韻律.」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이무렵 文人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던가 하는 것은 老舍가 “〈火葬〉과 같은 작품을 전쟁 전에 썼더라면 나는 틀림없이 그것을 휴지통 속에 쓸어 넣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는 그러한 용기가 없다. 10만 여자가 되는 이 소설을 쓰기 위하여 4개월 여의 시간을 소비하였다. 시간은 그냥 흘러보낼 수 있다. 그러나 밥은 그저 굴러오지 않는다”. “만약 사회가 아직도 문예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문예가들도 밥을 먹고 차를 마셔야 사는 동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²⁹⁾ 하고 털어놓은 말만으로도 충분히 짐작이 된다.

5. 〈龍鬚溝〉 및 其他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老舍는 잠시 미국에 건너가 있었다. 그러다가 1949년 中共政權이 수립되자 곧장 中國으로 돌아왔다. 거처가 안정되자 老舍는 1950년 여름부터 다시 話劇을 쓰기 시작하였다. 갓 수립된 政權인지라 여러가지 바쁜 사업들이 많았으나 문예 건설도 소홀히 할 수 없는 항목이었다. 老舍에게도 劇本 창작의 요청이 쇄도하였다. 당시 老舍의 회고에 의하면 劇本도 전국적으로 그야말로 기근 상태에 있었다.³⁰⁾

劇本을 쓴다면 어떠한 소재를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新生 共產國家의 中堅作家로서 모름지기 工農兵의 生活을 다루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老舍는 그들의 생활에 대하여 아는 것이

29) 老舍〈我怎樣寫《火葬》〉…「像〈火葬〉這樣的作品，要是擱在抗戰前，我一定會請它到字紙簍去的。現在，我沒有那樣的勇氣。這部十萬多字的小說，一共用了四個多月的光陰。光陰即便是白用，可是飯食併不白來。…我知道它不好，可是沒法子不厚顏去發表。…假若社會上還需要文藝，大家就須把文藝作家看成個也非吃飯喝茶不可的動物。」

30) 老舍〈暑中寫劇記〉…「全國普遍的鬧劇本荒，戲劇界的朋友們見面總是說：“寫劇本吧，寫劇本吧！”」原載〈人民戲劇〉第一卷第五期，1950年 8月 1日 出版。

없었다.³¹⁾ 그렇다고 되는데로 써 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老舍는 자기가 잘 아는 인물과 일들을 다루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그는 〈殘霧〉이래로 10년이상 사귀어 오던 藝人들의 세계를 중심으로 北京의 曲藝界 藝人들 특히 女子藝人들이 이룬 바 해방을 맞은 후 새로운 사회에 어떻게 學習하고 어떻게 進步하며 어떻게 翻身하는가 하는 사항들을 主題로 삼기로 하였다. 이러한 구상하에 생산된 劇本이 〈方珍珠〉이다.

이 劇本은 원래 四幕으로 예정하였으나 해방 후의 광명 세계를 찬양하기 위하여 막을 더하여 결국 五幕劇이 되었다. 이 劇本을 집필하면서 老舍는 浪漫과 寫實 사이에서 꽤 고민하였던 것 같다. 그는 1951년 1월에 발표한 自我檢討 형식의 글에서 “그것이 事實이든 또는 思想教育이든 간에 運用과 選擇의 妙를 期해야 하며, 寫實 때문에 平板해져서도 안되고 思想을 宣傳하기 위하여 藝術效果를 상실하여서도 안된다.”고 말한바 있고; 또 “만약 낭만이 작품으로 하여금 더욱 완정하고 더욱 유력한 선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만 한다면, 예술 작품이 사실에만 충실하기 위하여 낭만을 배제하여서도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³²⁾ 〈方珍珠〉가 완성된 뒤 老舍는 이 작품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비판과 의견을 참작하여 더러는 수정하고 더러는 보완도 하였으나 자기 뜻을 그대로 고집한 대목도 적지 않았다.

老舍는 〈方珍珠〉를 완성한 다음 곧 〈龍鬚溝〉를 쓰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龍鬚溝는 北京 남쪽 교외에 있는 불결한 시궁창 이름이다. 폭이 약 3‘미터’이고 길이는 약 150‘미터’정도 된다. 양쪽에 판자집이 뺨뺨이 들어서 있는데, 폭력이 난무하고 질병이 상존하는 빈민굴 암흑가로 소문이 난 곳이다. 中國에 新政權이 들어서기 전까지 과거의 정부

31) 全上…「我理應寫工農兵的生活，但是對他們的生活我毫無所知；閉着眼亂寫是萬不行的。」

32) 老舍〈談《方珍珠》劇本〉…「今日的藝術作品不當因效忠于寫實而不敢浪漫，假若浪漫足以使作品有更完整的更有力的宣傳效果。…寫實是好的，思想教育也是好的，但須善爲運用；選擇，以免因寫實而平板，因宣傳思想而失去藝術效果。」原載〈文藝報〉第三卷第七期，1951年 1月 25日 出版

에서는 백성들을 초개처럼 여겼고 그들의 생활 환경이 아무리 불결하고 아무리 해로워도 전혀 배려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때로는 탐관 오리가 나타나 이 시궁창을 개수한답시고 돈을 거두어 놓고 이를 착복 횡령하여 주민들의 원성을 자아내곤 하였었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자 바로 이듬해인 1950년 봄에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이 시궁창을 개수하고 환경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 주민들의 환호와 칭송이 대단하였음은 말할 것도 없었다. 老舍는 친구의 권고로 바로 정부의 이 시궁창 개수 사업 경위를 劇本으로 써 내기로 하였다. 그는 우선 이 사업과 관련된 서류들을 열람하였고 직접 현장에도 나가 보았다. 그리고 그곳의 한 작은 雜院을 중심으로 여러 인물들을 등장시켜 그들의 언동을 통하여 이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정부의 공적을 찬양하였다.

老舍는 〈龍鬚溝〉의 寫作 경위를 적은 글에서 이 작품이 그에게는 20여년의 창작 경험 중에서도 가장 큰 모험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³³⁾ 이 작품이 지니는 현실적 의미도 컸으려니와 등장 인물의 선정과 무대 효과에 대해서도 老舍는 많은 배려를 하였었다. 劇本이 완성되자 北京人民藝劇院에서 곧 바로 初稿를 가져다가 ‘리허설’에 들어갔고, 焦菊隱씨가 무대감독을 맡았다. 그리고 출연자들 자신이 현장 감각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 차례 직접 龍鬚溝에까지 나가서 그곳의 생활을 체험해 보기도 하였었다. 〈龍鬚溝〉를 쓰고 나서 老舍는 정부로부터 “人民藝術家”의 칭호를 받았으며, 이 작품은 映畫化되기까지 하였다.

老舍의 원작은 탈고 즉시 〈北京文藝〉에 발표되었다. 현재 〈龍鬚溝〉의 ‘텍스트’는 4종이 있는데, 北京大衆書店本(1951.4)이 原本이고, 上海晨光出版公司本(1952.2)은 修正本이며, 北京人民文學社本(1953.6)은 再修正本이고, 文化生活出版社本(1951.6)은 焦菊隱씨가 공연용으로 개편한 것이다.

33) 老舍〈〈龍鬚溝〉寫作經過〉…「在我的二十多年的寫作經驗中，寫〈龍鬚溝〉是個最大的冒險。」原載〈人民日報〉1951年2月4日第五版。

老舍는 1949년 中共政權 수립 직후 미국으로부터 귀국하여 1966년 8월 紅衛兵의 난동으로 목숨을 잃을 때까지 도합 23편의 극본을 생산하였는데 정부의 시책을 선전하거나 아니면 그 공적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들이 많다. <龍鬚溝> 이후에도 <春華秋實>(1953), <青年突擊隊>(1955), <西望長安>(1956), <茶館>(1957), <紅大院>(1958), <女店員>(1959), <全家福>(1959), <神拳>(1961) 등이 발표되었는데, 그중 <茶館>(三幕劇)은 제 1막 戊戌政變時代; 제 2막 民國時代; 제 3막 抗日戰時代로 나누어 전후 약 50년간의 政治情勢에 따른 社會變化를 茶館에 모이는 三教九流 여러 계층 사람들의 言動을 중심으로 간접적으로 묘사한 작품으로서 文藝作品으로는 <龍鬚溝>보다 오히려 높게 평가된다.

6. 結 語

老舍는 참으로 多才多能한 작가였다. 그는 나이 스물 일곱 살 때 우연한 기회에 장편소설을 쓰기 시작한 이래로 약 40년 동안 창작 활동을 계속하면서 단편소설·중편소설은 물론, 역시 우연한 기회에 시·극본 창작에까지 영역을 넓혀 나갔고, 또한 남달리 근면하여서 많은 작품들을 남겼다.

초기에는 變革期의 社會와 家庭을 배경으로 ‘유머러스’한 소설을 많이 썼고; 抗日戰爭 시기에는 抗戰文藝의 先鋒에 나서서 通俗文藝物의 창작을 서슴지 않았으며 劇作에도 열의를 보여 形式과 內容 면에서 新舊融化를 試圖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大陸에 中共政權이 수립되자 외국에 있다가 歡喜雀躍 귀국하여 새로운 體制에 적응하느라 안간힘을 써가면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現實에 참여하는 태도로 왕성한 창작 의욕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일부 文學史家들은 그를 愛國作家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는 그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祖國의 稚氣어린 소년들의 난동와중에서 참으로 불행한 모습으로 생을

마쳤다. 1966년 초가을, 老舍는 北京市 文聯主席의 신분으로 紅衛兵들의 文化大革命 專攻의 대상이 된 것이다. 소문에 의하면 老舍는 아담한 茶壺를 가슴에 안고 높은 건물 창문을 통하여 아래로 뛰어내렸다고 한다. 그리고 그 뒤로 10년이 지나 屍身없는 그의 넋이 새삼스러운 儀式을 갖 추어 北京의 八寶山革命公墓에 다시 安葬이 되었다 한다.